

‘자우림’ 김윤아

솔로 3집 발표

혼성그룹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36)가 솔로 3집 ‘315360’을 26일 발표한다.

2001년 솔로 1집, 2004년 2집에서 ‘봄날은 간다’와 ‘야상곡’으로 사랑받은 그의 솔로 음반은 6년 만이며, 작사·작곡·편곡·프로듀싱을 홀로 해냈다는 게 소속사인 사운드홀릭의 설명이다.

사운드홀릭은 “12트랙이 담긴 3집에는 결혼, 출산에 이르는 여자로서의 인생도 솔직하게 표출됐다”고 소개했다.

김윤아는 ‘도쿄 블루스’를 지난 16일 온라인에서 먼저 공개했다.

“사랑의 라이벌 문근영에 질 수 없죠”

‘신데렐라 언니’ 서우



“신데렐라 언니”는 감정의 액션 드라마입니다. 효선이가 이렇게 어려운 캐릭터인지 몰랐어요. 너무 어려워 정말 힘들어요.”

배우 서우(25)는 이렇게 말하며 가늘게 한숨을 쉬었다. 어쩌면 그것은 바로 ‘신데렐라’의 한숨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라고요’라는 노랫말 속 주인공 신데렐라 말이다.

최근 2년여 눈부신 팽색조 연기를 펼치는 서우가 KBS 2TV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에서 또다시 연기의 지평을 넓혔다.

어린 시절 엄마를 여의고 부자 아빠 밑에서 홀로 공주처럼 자랐지만, 계모와 의붓 언니 은조(문근영 분)의 출현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효선. 서우는 효선의 복잡한 상황과 심정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며 은조 역의 문근영과 팽팽한 연기대결을 펼친다.

“제목이 ‘신데렐라 언니’라 은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어요. 효선의 역할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어요. 또 어려운 작품이어도 막연하게 효선은 밝고 편한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촬영을 시작하니 전혀 아닌 거예요. ‘신데렐라 언니’는 액션 장르가 아니지만

선이가 변신하려면 초반에는 은조가 보기에 ‘정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눈 딱 연기 감고 했어요. 그런데 하는 저도 힘들었지만 보는 분들도 괴로웠을 것 같아요.(웃음) 그래도 많은 분이 귀엽게 봐주셔서 용기 내서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집안에서 막내라 여고생 효선이처럼 애교가 많은 편”이라며 “그래서 성인이 된 효선을 연기하는 게 더 어렵다”며 웃었다.

성인이 된 효선은 현재 집안의 ‘미운 오리 새끼’다. 아빠와 계모 사이에서 동생이 태어난 데다, 아빠는 능력 있는 언니 은조를 아낀다. 그는 계모가 자신의 앞과 뒤에서 전혀 다른 사람임을 애초에 간파했지만 내색하지 않는다.

“입 밖으로 꺼내 공론화하는 순간 현실이 더 가혹해질까 봐 효선은 애써 자기 상황을 모른 척하죠. 너무 불쌍하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안다고 표현하면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 날 것 같으니 계모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해주고, 아빠한테도 내색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계모라도 있는 게 다행이

2년간 실패없이 다양한 캐릭터 실험

“애정도 비난도 내가 짊어져야 할 몫”



감정적으로 액션 연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심리묘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왕따’ 여고생 ‘미쓰 홍당무’에서 발랄한 해녀(‘탐나는도다’), 형부와 치명적 사랑에 빠지는 여인(‘과주’) 등을 거치며 TV와 영화에서 나란히 부상하는 서우는 효선을 통해 21세기판 신데렐라의 모습을 창조했다.

어리광과 애교가 흘러넘쳐 감을 이루고, 순진함과 낙관함, 철없음으로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부잣집 아가씨 효선. 그러나 효선은 엄마의 부재로 인한 애정결핍으로 때때로 정신연령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갈렸다. ‘최강 동안’을 자랑하는 그가 옛된 표정으로 나이를 잊은 채 펼치는 여고생 연기에 ‘사랑스럽다’고 감탄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효선을 너무 모자란 애로 그린다는 평도 있었다.

“시청자들의 반응에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효선의 원래 캐릭터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뒤에 효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마의 사랑이 그리운 아이입니다.” 이제 효선은 변화한다. 자신이 아닌 은조가 집안의 ‘공주님’이 된 상황에서 어려서부터 따르던 기훈(천정명) 만큼은 절대로 은조에게 빼앗길 수 없다고 결심한 것.

“효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기훈이에요. 효선에게에는 엄마를 대신하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은조와 기훈이 사이를 방해하면서까지도 기훈 만큼은 ‘내 것’이라고 하며 자신이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앞으로 마음 아픈 일이 참 많네요. 대본을 받아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 정명이 오빠한테 ‘오빠, 나한테 어쩔 이럴 수 있어?’라고 하기도 했어요.(웃음)”

지난 2년여 쉬는 기간 없이 줄기차게 다양한 캐릭터를 실험한 서우는 “어떤 캐릭터를 연기해도 인간 서우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다. 효선이도 내게서 시작된 인물”이라며 “그 캐릭터가 답답하다고 비판받았다면 그것 역시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화 ‘구르를 버서난 달처럼’ 황정민

“맹인연기는 흥내 낸 정도

감정 끌어내기 가장 어려워”

“맹인처럼 행동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눈만 감고 연기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영화 ‘구르를 버서난 달처럼’에서 실감 나는 맹인 연기를 한 배우 황정민의 말이다.

황정민은 이 영화에서 조선 중기에 활약한 전설적인 맹인 검객 황정학 역을 맡았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난을 일으키는 이동학(차승원)과 한때는 동료였다가 조직의 항명을 놓고 나중에는 갈라서는 인물이다.

“맹인학교에서 하는 수업도 참관하고, 맹인분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결국 흥내 내는 데 불과하잖아요. 황정학이 맹인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인물의 내면에 다가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에서 그는 구부정한 자세로 칼잡이다운 재빠른 동작을 보여준다. 여기에 기묘한 웃음소리와 구성진 전라도 사투리로 눈길기 간다.

“검술은 신경을 써서 연기했고, 사투리는 녹음해서 반복해 들었어요. 나머지 주임새와 자세 등은 그냥 황정학이라는 인물로 계속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온 동작들이 많습니다.”

연기자는 가끔 인물에 너무 몰입돼 과장하는 연기를 할 때도 종종 있다. 더구나 황정학이라는 인물은 맹인이라 눈으로 하는 연기가 불가능해 표정변화에만 의존할 가능성도 있었다.

“중요한 건 감정을 처음부터 어떻게 끌고 가서 나중에 한 방에 터뜨리느냐예요. 그렇게 감정을 끌고 가는 게 솔직히 가장 어려웠습니다. 표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황정민은 다양한 영역에서 바쁘게 활동하는 연기자 중 한 명이다. 작년에만 그가 출연한 영화 ‘그림자 살인’과 ‘오감도’가 개봉했고, 드라마 ‘그저 바라만 보다가’에 출연했으며 뮤지컬 ‘웨딩싱어’, 연극 ‘웃음의 대학’에도 주연으로 나왔다.

“배우는 쉬면 바로 백수입니다. 연기할 때에야 비로소 ‘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살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가끔 공황에서 출입국신고를 쓸 때 직업란에 배우라고 쓰기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 놓고 있는데 배우라니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웃음)

현재 류승완 감독이 연출하고 있는 ‘부당거래’에 출연 중인 그는 벌써 차기작이 정해졌다고 한다. /연합뉴스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www.kimyoung.co.kr

김영면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 222-8088, 227-8088

개강 ▶ 5월 3일 대학편입 강좌안내

편입영어	지출이론반	편입영어 단과반 학습, 수험자료제공, 논술과 작문과 시험방법 등 단과반 학습하는 과정
	문제작품반	기출문제와 문제풀이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향상과 논술에 필요한 학습자료
편입수학	선형대수반	수학편입고시 대비하고 있는 선형대수학이론과 문제, 응용기, 예제, 문제풀이 등 학습 자료 제공

상위권대학편입 / 전남대편입 / 일반편입 / 학사편입 / 사범대편입

왜! 편입하면 김영인가?

편입학원 전문 강사진	편입학원 전문 강사진	편입학원 전문 강사진
대학편입 전문 강사진 20여명 - 100% 합격률 보장하는 교육	대학편입 전문 강사진 20여명 - 100% 합격률 보장하는 교육	대학편입 전문 강사진 20여명 - 100% 합격률 보장하는 교육